

# 에너지 자립도시 잔걸음

###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2년연속 선정 총 사업비 48억, 동부권역 618세대에 태양광 등 설치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8억원 규모로 국비 23억원을 지원받아 동부권역(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선산, 나포면) 약 618세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6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시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을 전라적으로 어렵게 심사 시 높은 점수를 얻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전년도 서남부지역(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주민 537세대에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 중에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시설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전기요금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해 모두가 행복한 자립도시 군산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의 원광대학교가 지난 8일 '익산시-원광대학교 관·학 협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익산시-원광대, 미래 먹거리 발굴 '맞손'

### 관·학협력 릴레이 세미나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지난 8일 '익산시-원광대학교 관·학 협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한 22개의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해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성공적인 익산형 뉴딜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선정을 통해 익산의 미래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

화 논의 후 최종 도출된 제안사업은 2차 협력 세미나에서 2022년도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은 "대학-지역 간 신뢰·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에게 "이번 협력 세미나를 통해 신규 국가예산 확보 및 우리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만든다

### 여가부 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국비 7000만원 등 1억 투입

익산시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에 나선다.

이번 선정으로 익산시는 국비 7,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원활한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익산상공회의소 5층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곳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져 개인학습공간, 휴게공

간, 인터넷 수강실, 직업체험, 1:1검정고시 멘토링 및 집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연계하여 '아너유, 학교밖 주얼리, 학교밖청소년자격을증신화과정 지원'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개발하는 등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간국가직업전문학교와 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전용공간 조성 사업을 계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경찰서·의료기관·고용노동부 등과 청소년 안 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의료 생활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여성청소년과 윤경 과장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전용공간 조성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원광대병원 입원환자 확진... 익산 10번째

### 접촉자 등 26명 자가격리

원광대병원 입원환자 중 익산 10번째(전북 95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익산시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9일 오전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비대면 현황브리핑을 열고 10번째 확진자의 감염현황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10번째 확진자는 보령시 거주자 심부전 시술을 위해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코로나19 대응자립상 확진자의 관리는 최초 인지한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소지인 보령시 확진자가 아닌 익산시 확진자로 분류됐다.

10번째 확진자는 7일 아침 9시 14분경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에 외래진료를 위해 방문했으며, 병원까지는 가족의 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당일 11시 25분까지 시술전 관련 검진을 받고 12시 19분 50일 병동에 입원했으며 13시 18분 CT촬영 결과 폐렴증후가 있어 내과에 진료 의뢰후 병실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인 8일에는 9시경 1인실로 전실하여 내과 소견으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1인실에서 격리하던 중 당일 16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익산 10번째 확진자는 원광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접촉자 파악을 통해 26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원광대학 교병원은 검사 및 진료 진행시 철저한 소독, 환자분리와 마스크 착용으로 일 반인과 방문환자에 대한 감염 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긴 연휴 기간과 전국적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번 명절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지역에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동안 방역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성묘객 분산을 위해 팔봉 공원묘지의 실내시설인 봉안당에 대해 사전 성묘 예약제를 실시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 부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2020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생활을 하는 만18세 이하 청소년까지 무료접종이 확대됐다.

일정은 지난 8일부터이며 생애 첫 접종하는 어린이(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는 임신부 및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보건소 어린이 접종은 관리번호발급대상자(주민등록번호 없는 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장기체류자)만 실시하며 임신부는 주소 상관없이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등)를 제시하면 된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는 보건소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어린이 59개소, 임신부 33개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의회, 코로나 극복 희망·응원 메시지 이벤트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코로나19로 힘든 익산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응원·희망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10~20일까지 실시한다.

시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학생들이 전하는 응원·희망메시지가 가진 공감과 소통의 힘으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벤트 동기를 밝혔다.

익산지역 초·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익산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lsan.gok.kr/child/index.ilsan>) 어린이 광장 '자유롭게 얘기해요'에 메시지를 남기면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9월 재산세 비대면 납부 하세요"

군산시가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비대면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산시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000여 건 262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지만, 지방세 납부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

대면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시청 및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 ARS 1588-5663 납부 방식,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

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고, 자동이체 신청 등으로 절세효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